**JESUSWAG 예수다움의 멋**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내뱉는 말들에서는 물론이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곤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언론을 통해 안 좋은 사례만 확대 보도되는 게 문제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신학 자체에 벌써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은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다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의 위기상황 속에서, 너무 진지함과 책임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여러 부정적인 말들에 위축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물론 들어야 할 얘기는 잘 듣고 참고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 구석으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럽교회가 처한 상황을 그 옛날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상황에 비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방나라에서 빌붙어 지내는 포로들처럼 이 유럽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가 주변화된 상황은 오히려 그 사회 변두리의 연약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무기력의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떤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지 모릅니다.

굳이 그걸 숨기려 하지는 않더라도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교회 안으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일상에서는 신앙과 무관하게 사는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가득한 신자의 삶 속에서 복음은 자기자신 혹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힘없는 반쪽 짜리 복음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는 배경은 오늘날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의 중심에 살던 사람들, 즉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로마문화권 속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려는 복음은 나사렛 예수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 ‘주님’이라는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공공연히 전하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형을 당한 사람을 제국의 반역자요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로마문화권 속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가 곧 세상의 ‘구주’라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는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고난 받을 각오도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결코 일부 사람, 일부 영역에만 관련되는 반쪽 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나라에로 부르십니다.

나보다 잘나고 의로운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부르시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기분 나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으면서도 결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다른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길을 떠나는 목자의 마음, 소유를 다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알아보고 급히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연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사람은 복음의 본뜻을 훼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이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동안 우릴 얽어 매고 있던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열정과 은사를 깨워 바른 방향으로 작동시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내 존재가치를 입증하려는 강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서 이제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좇아 가장 ‘나’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욕심에 이끌리던 삶에서 사랑에 이끌리는 삶으로, 허영심의 인간에서 열정의 인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앞서 걸어가신 참 인간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 받아 살고 있다는 사명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회복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각자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힘없는 자들이 억압받고 생명이 파괴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며, 저로서는 이 땅에서 이보다 나은 삶을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늘 다시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진정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한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무시하거나 전체 속에 용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독특하게 꽃필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자아가 예수의 인격과 상호작용하며 피워내는 꽃, 다시 말해서 ‘예수다움의 나다운 표현’입니다.

지난 주간에 TV 채널 Mnet의 힙합오디션프로 “Show me the money 5”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와이가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9천 명의 지원자 중 최후의 1인이 될 만큼 그가 뛰어난 음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신앙을 음악을 통해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수들이 음악을 통해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일을 삼갔던 것과 달리 비와이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대면서도 듣는 이들에게 거부감보다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결승에서 불렀던 <자화상 2>라는 곡의 두 번째 파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don’t give up /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 난 네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 생명 안에 우주 / 우주 안에 지구 /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지문 / 무지 많은 피부 중에 노랑임을 / 난 내가 밟은 이 땅의 희망임을 언제나 확신해 /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돼 / 제 3의 눈은 존재도 필요도 안 해 / 내 영혼은 알아 영원히 // God makes no mistake / God makes no mistake / God makes no mistake //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 내가 숨 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써 /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 삶을 선물로 받은 걸 당연하게 난 절대 여기지 않을래 /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 위에서 /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애 /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을래 / 죽음은 끝이 아닌 걸 /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어떠세요?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의 결과가 노래 가사에 진솔하게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한 사람의 당당한 외침입니다.

이게 이 노래의 전체가사가 아니라 일부분인데, 이 많은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템포의 랩으로만 소화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보다 가사가 적은 노래를 하면서도 중간에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전혀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신앙적 내용의 가사를 줄줄이 늘어놓는데도 사람들이 다 넋을 잃고 듣습니다. 그만큼 그의 노래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비와이는 말합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내 신념, 내 이야기를 음악에 담고 싶었습니다. /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없는 분들이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 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내 행복이라든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할 때 ‘다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냥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가르친 것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원래 힙합이라는 장르가 사회 부조리에 대한 울분과 저항을 음악을 통해 거칠게 표현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힙합 음악에서는 자기 얘기를 솔직하면서도 가볍고 강렬하며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비와이가 힙합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진심 어린 자기 얘기가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더 존중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힙합 뮤지션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스웨그(swag)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소비트랜드분석센터는 매년 10대 소비트랜드 키워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2014년에 한국사회 전반을 압도할 키워드 1번으로 선정됐던 말이 이 ‘스웨그’였습니다.

원래 ‘약탈품’ ‘장물’이라는 뜻의 이 말은 힙합 뮤지션들이 으스대는 기분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건들거리면서 뻐긴다는 느낌을 가진 말인데, 이 말이 보다 순화된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나의 것’ ‘나만의 스타일’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듯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스웨그가 있다” 라는 뜻은, 그에게 기성의 것과 다른 본능적인 자유로움이 있고,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뽐내는 그만의 멋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Show me the money 5>에서 비와이와 함께 작업했던 사이먼 도미닉은 “비와이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 가사를 쓰지만 그냥 비와이만의 스웨그가 있는 것 같다. 돈 자랑, 차 자랑 많은데 그만의 스웨그를 본 것이다. 가사가 되게 간만에 듣는 ‘착한 힙합’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자극적이지 않고 욕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흡수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비와이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은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신기합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말들인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멋지다.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줬다면 그것이 노래에 스며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존중되어야 하는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다.”

“오랜만에 신념 있는 크리스천을 봅니다. 비겁하고 간악한 기독교인보다 훨~”

“종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멋집니다. 저도 예수쟁이이고픈데… 아직 용기가…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댓글들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아주 짧은 한 마디입니다: “지저스웨그(JESUSWAG)~”

당연히 영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JESUS와 SWAG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이 JESUSWAG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자면,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갖는 그만의 멋”이 아닐까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삶 속에서 진솔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예수다움의 독특한 멋”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간 그 누구를 옆에 데려다 놓고 비교해도 예수님보다 멋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가진 독특한 멋에 매료되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아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되 죽기까지 내어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끝까지 우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에 있는 그대로 부응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그분 곁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걸음에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배제시키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는 위축되지 않았고 너무도 자주 그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만의 스웨그, 즉 JESUSWAG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서도 이 예수다움의 멋이 풍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실재하는 새로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건 약속이 있는 걸음이요 멋진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비와이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좋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자기 신앙을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성 있는 자기 얘기를 음악을 통해 적절히 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전제 속에서 각자의 상대적인 가치와 생각이 존중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생각이 절대라고 우기면 배척을 받지만, 자기 생각을 진솔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겸손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JESUSWAG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JESUSWAG가 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다움의 멋을 아는 사람들, 그 멋을 삶 속에서 진솔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삶으로 자기 얘기를 진솔하고 당당하게 들려주며 예수다움의 멋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 복음의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못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잘 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 어떻겠습니까?

각자가 좋아하고 잘 하는 영역에서부터 자기만의 JESUSWAG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 예수다움의 멋을 진솔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다움의 멋이 풍겨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

**삶 속에서 예수다움의 멋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